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전 속도

도, 내달까지 기본구상안 용역...공모 대응 AI·에너지 전환기반연대·분산형 회의 전략

전남도가 오는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유치하기 위해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도약 전략의 하나로 '2028 G20 정상회의' 유

치를 공식 발표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G20 개최 도시 공모에 대비한 유치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는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해 온 도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의 실제 해법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 ▲AI 첨단기술로 도약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워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G20 유치의 관건으로 작용할 인프

라 부족도 단일 도시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 도시를 잇는 '연대·분산형 회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권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외교 공간을 조성한다. 동부권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숙박·관광 인프라를 활용한다. 서부권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실천형 회의 공간으로 구성해 권역별 거점을 하나의 회의 네트워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G20 유치 기본구상안에는 ▲전남·광주의 도시 여건과 강점 ▲전남·광주의 G20 유치 기본전략 및 실행계획 ▲차별성 있는 개최 방식 ▲주요 콘셉트와 핵심메시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4월까지 기본구상안 수립을 완료한 뒤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의 G20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글로벌 정상회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 단계"라며 "기후·에너지·문화 등 전남·광주의 강점을 세계적 의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G20 개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국가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을 포함한 총 21개 주요 경제대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이 G20을 개최하는 것은 2010년 서울 이후 18년 만이다. /양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중동사태 '비상경제 대책 TF' 가동

상황 점검·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 착수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경제 위기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책 TF'를 긴급 가동했다.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도·시·군 합동 '중동사태 비상경제 및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외 상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를 가동하고 10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에너지 수급,

도내 수출기업 통상 대응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내 수출기업 보호,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급 관리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가축 질병 확산 차단과 산불 재난 예방 등 봄철 재난 분야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시설물 붕괴, 주택 화재 안전관리, 사업장 위험시설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2개 시·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중동사태 비상경제점검회의
"담합·매점매석 등 엄정 제재
어려운 환경 악용 세력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의 준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할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 전방위적 대비 수단을 철저히 치밀하게 마련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아울러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 '노란봉투법' 안착 지원...전담반 운영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을 맞아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통한 격차 완화 기반 마련'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관해서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관련 혼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한다.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면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층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